에버랜드 아기 판다 '푸바오' 바깥 나들이

17일까지 사전 예약제로 순차 관람

푸바오(오른쪽)과 어미 판다 아이바오. /삼성물산

에버랜드 아기 판다 '푸바오'가 나들이에 나선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4일부터 푸바오 바깥 외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푸바오는 지난해 7월 20일 국내 유일 자이언트 판다 커플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국내 최초 암컷 판다로, 공모를 통해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인 '푸바오'를 이름으로 정했다.

출산 당시 체중이 197g에 불과해 비공개 특별 거처에서 성장해왔지만, 생후 5개월을 넘기면서 10㎏을 넘기고 어미와 떨어져서도 네발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등 건강하게 성장해 외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에버랜드는 설명했다.

푸바오는 매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판다월드 방사장에서 어미인 아이바오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적응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사 시간을 조절한다. 4일부터 17일까지는 사전 예약제로 소규모 인원 순차관람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킨다.

/김재웅기자 juk@

전국 남양유업 영업사원, 소외이웃에 나눔 활동 남양유업은 영업사원들이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들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요양 시설, 독거노인 시설, 헌혈의 집 등을 방문하여 각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들을 펼쳤다. /남양유업

세븐일레븐, 기업문화개선 '리스펙트7 캠페인'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기업문화개선을 위한 '리스펙트7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선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리스펙트7 캠페인'의 핵심은 직급간, 세대간, 그리고 부서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한 유연한 조직문화 성립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잡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븐일레븐

옥션, '희희낙찰' 기부 캠페인 성료

수익금 루게릭요양센터 건립 지원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옥션이 '승일희망재단', '깨끗한나라'와 함께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진행한 기부 캠페인 '희희낙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희희낙찰은 자선경매를 통해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된 고객 참여형 기부 행사로 인기 셀럽들의 애장품 경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EXO 수호, 소녀시대 수영, KIA 타이거즈 야구선수 김선빈, 가수 김범수, 가수 션 등 5명의 셀럽이 기증한 애장품 경매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 많은 고객들의 입찰이 이뤄지며 경매 마감 시점 각 상품별 최고가에 응찰한 고객에게 낙찰됐다. 특히 EXO 수호가 기증한 '프라이노크 후드티셔츠'는 176만원에 낙찰되며 이번 행사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 경매로 모인 수익금 전액은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된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화장지, 마스크, 손소독티슈 등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다. 행사기간 판매 수량만큼 위생용품을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소기업인 氣살리기 정책 우선돼야

기 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2021년은 중소기업인 기(氣) 살리기가 우선이다.

지난해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중소기업은 내수와 수출이 급감하면서 60.3%가 매출이 줄었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폐업이 속출했다. 근로자들도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며 역대 최악의 고용난을 맞이했다.

다행히 중소기업 만기대출 연장과 특례보증 및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위기돌파를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함께 하며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도 만들졌다.

방역과 비대면 디지털이 일상화되면서 관련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방식을 과감히 온라인 방식을 전환해 위기탈출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국가간 이동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선방했다. 지난해 11월기준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2.2%가 증가했고,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 등 주요품목은 33.4%나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우선은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 10곳중 6곳 가량은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이 떨어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매길 경우 등급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고, 대출한도는 축소될 것이 뻔하다. 자금 융통을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라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당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제정 등 기업을 옥죄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입법 논의를 멈춰야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킨다는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들에게 너무 과도하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오너의 99%가 경영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경영자인 대표이사에게도 징역형 등이 처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이나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40% 정도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고 답했다. 특히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의 경우 10곳 중 8곳 이상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활력회복은 '9983', 대한민국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주봉 옴부즈만, 농업분야 中企 애로해소 앞장

농기계 임대료 납부방법 등 개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년부터 농업 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나섰다.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를 더욱 편리하게 빌려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값비싼 농기계를 농업인이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이 다르거나 임대료 납부 기한, 방법, 계약 조건 등이 각자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농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의 거주지와 농경지 주소가 다를 경우 농경지 해당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계약 조건 등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해 애로사항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주소가 다른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농기계 임대 허용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을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 확대하고 납부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개선 ▲농기계 출고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를 고의·과실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 산정 등으로 개선키로 하면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통일부**◇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통일법제지원팀장 박여진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김인중 ◇과장급 파견△농식품부(국외훈련) 김소형 ◇과장급 주재관 귀임 △농식품부 최봉순

◆**한국언론진흥재단** 〈승진〉◇국장 △뉴스유통국장 정대필(이상 국장) △광고기획국장 최대식 △광고운영국장 황호출(이상 국장대우) △저널리즘지원팀장 양승혜 △광고컨설팅팀장 홍원철 △신문유통팀장 이원섭 △정보기술팀장 조윤태(이상 부장) △경영지원팀 윤성욱 △부산지사장 나은미 △대구지사장 김태우(이상 부장대우) △경영지원팀 유재준 △광고협력팀 송기영 △광주지사 서진원 △광고협력팀 김예원 △신문유통팀 김성수 △뉴스저작권팀 이상준 △검사역 김서원(이상 차장) △신문유통팀 송재원 △대구지사 김교원 △디지털혁신지원단 송민환 △언론인연수팀 강혜주 △언론인연수팀 최윤희 △공공법인광고팀 이창희(이상 차장대우)

◆**대구시 동구** ◇ 4급 승진 △기획정책국장 박윤철 ◇ 4급 전입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개방형직위 임용 △ 보건소장 김정용

◆**대전시 서구** ◇3급 전보 △부구청장 성기문 ◇4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복지산업국장 곽승근 △대전시 김현호(전출)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평생학습원장 황종균 ◇5급 승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순주 △가장동장 이종건 △갈마1동장 정순영 △둔산2동장 이종한 △월평3동장 이성미

부음

▲이한각씨 별세, 이윤모(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이사)씨 부친상= 2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4일 오전 08시. 031-787-1500.